MARKET INSIGHT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2.6.10

미 증시, 중국 코로나 규제와 업종 차별화 속 낙폭 확대 마감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 관련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ECB가 통화정책을 통해 7월 금리인상을 시사하자 국채 금리 상승으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며 하락. 이후 금요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주목하며 낙폭을 좀더 확대한 가운데 최근 상승하던 중국 기술주가 알리바바(-8.12%) 여파로 급락했으나, 코스트코(+0.87%)에 힘입어 소매 유통 업종이 견고함을 보이는 등 업종 차별화 진행되며 마감(다우 -1.94%, 나스닥 -2.75%, S&P500 -2.38%, 러셀2000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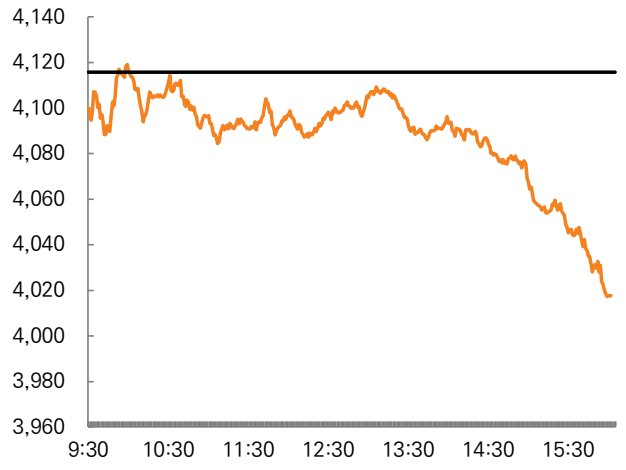
특이 종목

- 테슬라(-0.89%)는 견고한 5월 판매 발표에 더불어 UBS가 올해 하락으로 매력적인 매입 시점에 도달했다며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자 상승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NXP세미컨덕터(+4.04%)는 삼성전자로의 피인수설 소식에 상승. 애플(-3.60%)이 선구매 후지불 시스템을 스스로 처리할 것이라는 소식에 어펌 홀딩스(-9.22%), 블록(-9.64%) 등이 급락. 애플은 5월 하드웨어 판매량 감소 소식에 하락. 알리바바(-8.13%)는 앤트그룹 IPO 관련 증감위에서 협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 했으며 핀듀오듀오(-9.62%) 등 중국 기술주가 급락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1.89%, MSCI 신흥 지수 ETF는 3.2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64.86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55% 하락. KOSPI는 1% 내외 하락 출발 예상.
- 글로벌 주식시장이 ECB의 금리인상 시사 발표와 중국의 코로나 규제 이슈로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전일 장 마감 직전 선물옵션 만기일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으로 반등을 보여 일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하락 출발 요인. 한편, ECB의 통화정책 회의와 중국의 코로나 규제 소식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 또한 부담.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1% 내외 하락 출발 후 중국 코로나 관련 소식 등에 주목하며 반도체, 애플 부품주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개별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625.44	-0.03	상해종합	3,238.95	-0.76
KOSDAQ	877.18	+0.25	홍콩항셍	21,869.05	-0.66
DOW	32,272.79	-1.94	베트남	1,307.80	-0.01
NASDAQ	11,754.23	-2.75	유로스톡스 50	3,724.45	-1.70
S&P 500	4,017.80	-2.38	영국	7,476.21	-1.54
캐나다	20,567.34	-1.08	독일	14,198.80	-1.71
일본	28,246.53	+0.04	프랑스	6,358.46	-1.4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변화 요인

①ECB 통화정책 회의 ②중국 코로나 정책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금리를 동결. 그러나 보도자료를 통해 7월에는 25bp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9월 추가적인 인상도 시사. 9월 인상 비율은 인플레이션 추이에 달려 있는데 악화될 경우 더 큰 인상이 적절하다고 언급.

한편, ECB는 올해 연간 인플레이션을 6.8%로 전망했으나 내년에는 3.5%, 2024년에는 2.1%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 경제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무역을 교란시켰으며 높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을 부추겨 성장을 저해했다고 주장.

라가르드 ECB 총재도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가운데 추가적인 금리인상 경로와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중기 목표인 2%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경제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위축이 불가피하나 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과 고용의 안정을 통해 개선 될 것으로 전망.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세 폭을 확대했으나, 7월과 9월 금리인상을 시사한 여파로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급등. 특히 골드만삭스가 9월과 10월 ECB의 50bp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등 투자회사들이 ECB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를 것으로 내다본 점도 유럽 국가들의 국채 금리 상승 요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적으로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 점도 영향. 북경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발생으로 유흥시설 운영이 중단 되었으며, 상하이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11일 전 주민 대상으로 PCR 검사를 단행한다고 발표. 특히 상하이 민항구의 하루 봉쇄와 전수 검사 소식은 재봉쇄 우려를 높이며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 시킴.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 속 비철금속이 하락하는 등 상품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점이 특징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핀테크, 중국 기술주 급락

테슬라(-0.89%)는 견고한 5월 판매 발표에 더불어 UBS가 올해 하락으로 매력적인 매입 시점에 도달했다며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자 상승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시그넷 주얼러스(+9.05%)는 낙관적인 전망,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로 급등. NXP세미컨덕터(+4.04%)는 삼성전자로의 피인수설이 유입되며 상승. 코스트코(+0.87%)는 인플레이션에 강하다며 투자의견 비중 확대 발표로 상승. 반면, 애플(-3.60%)이 선구매 후지불 시스템을 스스로 처리할 것이라는 소식에 어펌 홀딩스(-9.22%), 블록(-9.64%) 등이 급락. 애플은 5월 하드웨어 판매량 감소 소식에 하락. 넷플릭스(-4.96%)와 로쿠(-9.33%)는 인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소식에 인수 합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부각돼 하락.

알리바바(-8.13%)는 앤트그룹 IPO 가능성이 부각되기도 했으나, 증감위에서 협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 여전히 규제가 완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로 핀듀오듀오(-9.62%), JD닷컴(-7.63%), 바이두(-4.82%) 등 중국 기술주가 급락. 여기에 상하이 및 북경 일부 지역의 봉쇄 소식에 니오(-7.65%), 샤오펑(-5.52%) 등 중국 전기차 업종이 하락. 특히 이날 실적 발표한 니오의 CEO가 코로나 봉쇄로 어려움을 겪었고 3분기까지 회복되기 어렵다고 언급하자 투자 심리 위축. 소매업체인 파이브빌로우(-1.37%)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로 하락. 노바백스(-17.22%)는 FDA가 코로나 백신 관련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는 소식에 급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32	대형 가치주 ETF (IVE)	-2.54
에너지섹터 ETF (OIH)	-3.47	중형 가치주 ETF (IWS)	-2.65
소매업체 ETF (XLY)	-1.81	소형 가치주 ETF (IWN)	-2.27
온라인소매 ETF (EBIZ)	-4.99	대형 성장주 ETF (VUG)	-2.71
금융섹터 ETF (XLF)	-2.51	중형 성장주 ETF (IWP)	-2.65
기술섹터 ETF (XLK)	-2.67	소형 성장주 ETF (IWO)	-2.35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3.93	배당주 ETF (DVY)	-2.08
클라우드 ETF (CLOU)	-3.69	신흥국 고배당 ETF (DEM)	-1.56
미국 리츠 ETF (VNQ)	-2.37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2.57
주택건설업체 ETF (XHB)	-0.47	미국 국채 ETF (IEF)	-0.09
바이오섹터 ETF (IBB)	-3.49	하이일드 ETF (JNK)	-0.82
헬스케어 ETF (XLV)	-2.26	물가연동채 ETF (TIP)	-0.02
곡물 ETF (DBA)	0.00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66
반도체 ETF (SMH)	-2.66	모멘텀 ETF (MTUM)	-3.35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필수소비재	747.32	-1.50	-3.26	-6.59
경기소비재	1,176.70	-1.96	-4.78	-0.02
산업재	788.81	-1.97	-2.42	+0.11
부동산	263.42	-2.29	-5.04	-1.50
헬스케어	1,483.32	-2.29	-2.91	+0.71
에너지	682.35	-2.30	+2.21	+18.00
소재	527.19	-2.39	-3.77	+2.61
유틸리티	362.99	-2.44	-3.81	-0.15
금융	559.10	-2.61	-4.72	-0.66
IT	2,379.00	-2.72	-5.01	+0.61
통신	197.80	-2.75	-3.66	+1.31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하락 출발 후 개별 업종 차별화 장세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1.89%, MSCI 신흥 지수 ETF는 3.1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64.86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55% 하락. KOSPI는 1% 내외 하락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 부진 여파로 하락 출발 했으나, 중국의 수출이 달러화 기준 전년 대비 16.9%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되며 낙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이런 가운데 장중 중국의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선물옵션 만기일에 따른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보합권 혼조 마감. KOSPI는 0.03% 하락, KOSDAQ은 0.25% 상승

이런 가운데 글로벌 주식시장이 ECB의 금리인상 시사 발표와 중국의 코로나 규제 이슈로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전일 장 마감 직전 선물옵션 만기일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으로 반등을 보여 일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하락 출발 요인.

한편, 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생각보다 덜 매파적이라는 점과 중국의 코로나 규제 소식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원화 약세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외국인 수급 관련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 또한 부담.

그러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피크' 기대를 높일 수 있는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는 점에서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1% 내외 하락 출발 후 중국 코로나 관련 소식 등에 주목하며 반도체 및 애플 부품주 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개별 업종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부진한 미국 고용지표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건수가 지난주 발표된 20.2만 건은 물론 예상(21만 건)을 상회한 22.9만 건을 기록. 4주 평균은 20.7만 건에서 21.5만 건으로 상승. 비록 실업 수당 청구건수가 올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의 견고함을 유지

상품 및 FX시장 동향

달러, ECB 통화정책 회의 이후 강세폭 확대

국제유가는 중국의 상하이와 북경지역의 코로나 규제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 더불어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도 하락 요인. 그렇지만, 중국의 수출입 통계가 견고한 모습을 보였고,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진행됨에 따른 수요 증가 소식은 하락을 제한.

달러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된 가운데 유로화 약세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 유로화는 ECB가 통화정책을 통해 7월과 9월 금리인상을 발표했으나, 내용이 생각보다 덜 매파적이라는 분석에 달러 대비 약세폭을 확대. 특히 라가르드 총재가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언급한 점이 영향.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기도 하는 등 보합권 등락. 여타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

국채금리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보합권 등락. 특히 중국의 코로나 이슈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음에도 ECB 통화정책 이후 유럽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급등한 점도 영향. 한편, 3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인 2.33배를 상회한 2.35배, 간접 입찰도 66.0%보다 높은 69.0%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증가하자 미 국채 금리 상승을 제한.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음에도 달러 강세 여파로 소폭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중국 코로나 이슈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로 하락. 곡물은 대두가 강한 수요로 수확기까지 공급의 타이트함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속 10년내 최고치에 근접. 옥수수의 경우 수출 증가 및 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 이슈가 부각되며 상승. 밀의 경우는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97%, 철근은 0.44%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121.51	-0.80	+3.65	Dollar Index	103.364	+0.80	+1.51
브렌트유	123.07	-0.70	+4.34	EUR/USD	1.0617	-0.92	-1.21
천연가스	8.96	+2.90	+5.49	USD/JPY	134.39	+0.10	+3.50
금	1,852.80	-0.37	-1.16	GBP/USD	1.2491	-0.37	-0.69
은	21.82	-1.90	-2.69	USD/CHF	0.9811	+0.27	+2.40
알루미늄	2,762.00	-2.02	-0.90	AUD/USD	0.7096	-1.36	-2.33
전기동	9,621.00	-1.12	+1.84	USD/CAD	1.2702	+1.13	+1.05
아연	3,767.50	-1.41	-3.73	USD/RUB	57.4407	-5.14	-9.83
옥수수	716.75	-0.31	+3.06	USD/BRL	4.9153	+0.33	+2.46
밀	1,071.25	-0.16	+1.39	USD/CNH	6.7008	-0.00	+0.66
대두	1,582.25	+0.86	+2.58	USD/KRW	1,256.90	+0.25	+1.59
커피	234.80	+1.21	-1.45	USD/KRW NDF1M	1,264.86	+0.60	+1.8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042	+2.03	+13.42	스페인	2.623	+14.10	+24.70
한국	3.475	+0.50	+5.50	포르투칼	2.644	+13.90	+23.30
일본	0.251	0.00	+1.00	그리스	4.123	+15.00	+41.50
독일	1.430	+7.60	+19.30	이탈리아	3.454	+22.70	+30.1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